



북한 기도회

2022년 7월 - 2022년 8월





기도제목1. 북한의 군사도발 중단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를 통한 전략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형 핵무기는 파괴력을 줄이는 대신 실제 사용하기는 더욱 용이하고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2.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 도발과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은 현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핵 개발은 북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이 진행된다면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가 자신들을 정말 지켜주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악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3.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식량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00여명 이하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추가적인 사망자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봉쇄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년이 넘는 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장마당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주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 생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확산 시기가 주요 모내기철인 5월과 겹치면서 식량난이 우려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미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춘궁기가 지난 7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국경 정상화와 장마당 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북한 당국 외부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폐쇄적이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4. 중국의 코로나 사태 해결과 선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이 예상보다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경제적 충격도 감수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해 비어있는 집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살균 소독을 진행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북한선교에 중요한 현장들도 계속해서 봉쇄되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한 주민 통제와 반동사상문화법 등과 연계되어 강화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적발 사례와 이로 인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순교와 고난의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6.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7.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된 여파로 각 교회들의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식어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상황도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대 속에서 일꾼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통일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현장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